

房楊枝

房楊枝는 나무끝을 술처럼 만든 이쑤시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使用했다는 기록을 찾을수 없지만 日本에서는 江戸時代に 使用했던 이뒹이용 이쑤시개 (齒刷予冊 楊枝)로서 알려져 있다.

여기에 日本 이쑤시개는 佛家에서 나왔으며 古代 인도에서 중국, 한국을 거쳐 傳來된 佛敎를 따라서 갔다는 定說이 있다.

그 크기는 八指에서 十二指로서 桑科의 菩提樹 나무를 使用했다. 이것을 齒木으로 불렀던바 佛家에서는 매일 아침 그 일단을 깨물어 술을 만들어 구강 청소를 함으로 禮拜를 드렸다고 한다.

그 種類는 대단히 다양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9~30cm 정도가 적당한 크기로서 보 통은 12cm 정도이다. 그 일단을 깨물어서 그 술이 작고 많고를 용도별로 만들었으며 손잡이는 둥글거나 四角으로서 그 끝은 뾰족하여 현재의 이쑤시개와 비슷한 형태가 많다. 용도도 여성, 남성용이 다르며 遊客들이 嗽茶碗의 물로서 房楊枝에 齒磨鹽으로 이를 닦고 입안을 씻었이며 손을 씻었다는 기록이 있다.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93 - 6671